

로이드 존즈와 한 판!

- 읽을 말씀 단 9:24-27, 마 24:15-16, 21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70이레가 요한계시록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해석에 대해 제기된 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0이레의 마지막 이레가 초림을 예언한 것이라는 로이드 존즈의 주장이 틀렸음을 완벽하게 증명하겠습니다.

70이레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70이레에 대한 저의 견해가 100% 옳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계시록 해석이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즈의 「교회와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책을 읽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로이드 존즈가 다니엘 9장의 문맥을 통해 저의 견해에 치명적인 두 가지 태클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70이레 이후에 될 일을 24절에 기록했는데, 그것이 그가 설명한 대로 초림 때 일어날 일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그 결과 70이레 예언은 종말에 대한 것일 수 없어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24절의 “지극히 거룩한 이”는 25, 26절의 “기름부음 받은 자”와 동일인물일 수밖에 없으므로 초림하실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70이레 예언은 초림을 예언한 것일 뿐 재림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24절이 70이레 후에 일어날 일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동번역성경은 “**칠십 주간이 지나야**”로, 새번역성경은 “**이 기간이 지나가야**”로 번역했습니다. 특히 공동번역을 통해 24절이 초림이 아닌 재림에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했고, 모호하게만 보였던 24절 후반부가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먼저, “**히물이 그치며**”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응과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이것을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으로 보았으나(마 24장),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보면 더 잘 어울립

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징벌의 날**”(22) 이라고 했으므로 “허물이 그치며” 는 재림에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주후 70년이 아니라 대환난 때 징벌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 “**죄가 끝나며**”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역을 일삼아왔던 이스라엘이 반역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림에만 어울립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은 70이레의 마지막 이레에 돌아오기 시작하여 재림 때 온전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악이 용서되며**”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주신다는 것이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영원한 의를 얻고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는 초림 뿐 아니라 재림 때에도 잘 어울립니다.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환상과 예언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재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는 로이드 존스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24절은 70이레 후에 이루어질 일을 요약한 것이고, 25-26절은 70이레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는 것은 재림, 25-26절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초림으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저는 24절 후반부가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전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재림 때 기름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며 초림 때 이미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더 결정적인 이유는, 24절의 “지극히 거룩한 이” 가 원어로 "코데쉬 카다솝"인데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 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새번역성경은 “**가장 거룩한 곳**”으로, 현대인의성경은 “**가장 거룩한 성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뜻합니다. 처음에 성전이 세워질 때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정결케 했습니다(민 7:1).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이 침공하여 성전을 약탈함으로 모든 것이 더럽혀졌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과 성전 기명들이 약탈당하고 더럽혀진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의 파괴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과 그 기명들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성전 회

복이 아니라(구약시대에는 둘 다를 의미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리라는 예레미아의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4절은 70이레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27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26절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와 디도를 뜻하는 **“한 왕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그”**는 당연히 디도입니다. 예수님은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에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 후의 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다시 나오므로 26, 27절의 **“그”**는 같은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디도와 동일시되는 인물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은 다니엘서 자체가 뒷받침해줍니다. 70이레에서 다니엘은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27)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부터”**(12:11)에서 제사를 폐하고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의식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대환난의 신호탄입니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므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12:7)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됩니다. 11절은 7절에 대해 다니엘이 물었을 때 대답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같은 시기에 일어난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표현은 다니엘 7장과 계시록에서처럼 대환난 기간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즉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세상 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통한 대환난을 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재확인됩니다(마 24장). 더구나, 다니엘 12장 1절은 같은 시기가 마지막 대환난 때라는 것을, 2절은 그 일이 재림 때 있을 부활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27절은 단지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의한 마지막 대환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9장 27절의 후반절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

였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검증이 됩니다. 계시록 15-19장까지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종말) 때까지 실제로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27절 후반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15, 21) 라고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주후 70년 예루살렘 함락이 아니라 다니엘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단 12:1)이라고 예언한 대환난입니다. 그리고 그 뒤 “**그날 환난 후에 …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29-30)라는 말씀은 재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중에 언으로 이해하고 인용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니엘 9장 27절과 마태복음 24장 전반부는 이중예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69이레와 마지막 이레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말을 완벽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중예언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격이론이 옳다는 것이 100% 증명됩니다. 또한,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계시록 해석의 결정적인 실마리와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이중예언이고, 따라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또, 마지막 이레의 절반(3년 6개월)은 “한 때 두 때 반 때” 와 동일한 기간으로 모두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기간으로 쓰였습니다(단 7:25, 12:7, 계 12:14). 그런데 계시록에 같은 기간인 “마흔두 달” 혹은 “천이백육십 일” 도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대환난 기간입니다(11:2, 13:5, 12:6, 14). 또한, “마흔두 달” 과 “천이백육십 일” 은 “한 때 두 때 반 때” 를 해석한 실제 기간으로,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오지만,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상징으로 보아 해석이 뒤죽박죽이 되고 주석과 강해집이 소설화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나눔과 적용

요한계시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대환난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며 깨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결단들을 나누어봅시다.